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초점)-연준 의장의 말이 중요할까, 분위기가 중요할까.. 첫 연구 결과 나와
 - ◇ (초점)-델타 변이에 억눌린 원화.. 7월 무역 적자 가능성까지 '부담'
 - ◇ (시장진단)-흐릿해진 인디케이터, 또다시 기로에 선 달러/원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민간 우주여행 시대를 열 블루 오리진을 설립한 제프 베조스가 승무원들과 함께 직접 탑승한 로켓이 텍사스주 발사 기지에서 상공으로 솟아오르고 있다. (로이터/조 스키퍼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7월23일 종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50.8	-1.0%	-5.6%	+6.5%	유로	1.1771	-0.3%	-3.6%	+8.9%
100엔 대비	1,041.4	-0.4%	1.0%	+1.1%	엔	110.54	-0.4%	-6.6%	+5.2%
유로 대비	1,355.2	-0.6%	-2.1%	-2.3%	위안	6.4701	-0.1%	0.9%	+6.7%
위안 대비	177.64	-0.8%	-6.4%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5,061.55	1.1%	14.6%	+7.2%
코스피	3,254.42	-0.7%	13.3%	+30.8%	나스닥	14,836.99	2.8%	15.1%	+43.6%
코스닥	1,055.50	0.3%	9.0%	+44.6%	S&P500	4,411.79	2.0%	17.5%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672.01	-1.9%	1.5%	+19.8%
국고채 3Y	1.393%	-5.8bp	41.7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1.639%	-7.9bp	30.4bp	-14.5bp	미국채 2Y	0.200%	-2.7bp	7.9bp	-144.0bp
국고채 10Y	1.888%	-12.0bp	17.5bp	+3.0bp	미국채 10Y	1.281%	-1.9bp	36.9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72.07	0.4%	48.5%	-20.5%	한국 5Y	18.6bp	0.1bp	-3.4bp	+0.1bp
금(현물)	1,801.34	-0.5%	-5.1%	+25.0%	일본 5Y	17.0bp	0.0bp	2.0bp	-4.5bp
TR상품지수	2,937.29	0.7%	9.6%	+7.8%	중국 5Y	38.4bp	1.3bp	10.3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7월 26일(월)>

- 기재부, 2차관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합동브리핑(11:00)
- 한은, 2분기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12:00)

<27일(화)>

- 한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08:00)
- 통계청,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12:00)
- 기재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22:00)

<28일(수)>

- 한은,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06:00)
-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위장계좌 조사 결과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12:00)
- 한은, 6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 통계청, 5월 인구동향/6월 인구이동(12:00)

<29일(목)>

- 기재부, 거시경제금융회의(09:30)
- 한은, 6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00)
- 기재부, 8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7월 발행실적 (17:00)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12:00)

<30일(금)>

- 한은,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 통계청, 6월 산업활동동향(08:00)
- KDI 북한경제리뷰(2021. 7)(12:00)
- 한은, 2020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12: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7월 26일(월)>

- 일본 7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09:30)
- EU 재무·경제장관 비공식 화상 회의
- 미국 6월 건축허가 (21:00)
- 미국 6월 신규주택 판매 (23:00)
- 미국 7월 앨러스연은 제조업 경기지수 (23:30)

<27일(화)>

- 중국 6월 산업이익 (10:30)
- 유로존 6월 총 유동성(M3) 증가율·가계대출 (17:00)
- 미국 6월 내구재주문 (21:30)
- 미국 5월 주택가격 (22:00)
- 미국 7월 소비자신뢰지수 (23:00)
- FOMC, 금리결정 회의 (~28일)

<28일(수)>

- BOJ, 7월 정책회의 주요 의견 요약 (08:5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6월 도소매재고 (21:30)

<29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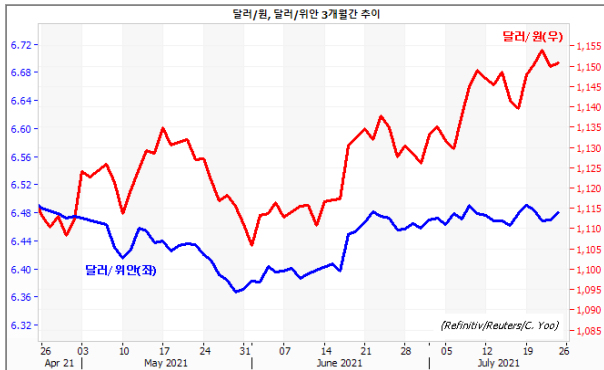
- FOMC, 금리 결정 및 성명 발표 (03:00),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03:30)
- 유로존 7월 기업환경지수(18:00)
- 미국 2분기 GDP 잠정치 (21: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6월 잠정주택판매지수 (23:00)

<30일(금)>

- 일본 6월 실업률 (08:30)
- 일본 6월 산업생산 잠정치·소매판매 (08:50)
- 일본 6월 건축주문·주택착공 (14:00)
- 유로존 7월 CPI (18:00)
- 유로존 2분기 GDP 잠정치 (18:00)
- 유로존 6월 실업률 (18:00)
- 미국 6월 개인소득·근원 PCE 물가지수 (21:30)
- 미국 2분기 고용비용 (21:30)
- 미국 7월 시카고 PMI (22:45)
- 미국 7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최종(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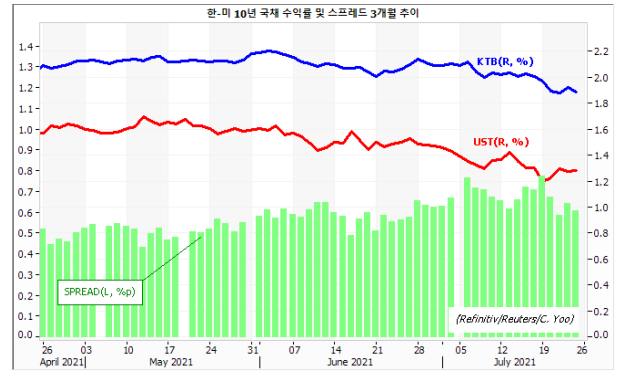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국내외 핵심 경제지표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회의 결과 따라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40-1165 원이다.
- 국내외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부추겼지만, 이전과는 달리 이번 재유행과 관련한 사망률이 낮게 유지되면서 이에 따른 시장 민감도는 점차 둔화되는 모양새다.
- 그렇다고 해도 원화의 되돌림 시도는 제한적이다.
- 이런 가운데 29일 새벽(한국시간)에 있을 연준 정책회의를 전후해 글로벌 달러 행보는 이번 주 달러/원 환율에 있어 최대 변수다.
- 한편 이번 주는 국내외 핵심 경제지표 발표도 예정되었다.
- 한국은행은 27일 2분기 GDP(속보치)를 발표했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 따르면 2분기 GDP는 전기보다 0.7% 증가해 1분기 1.7%보다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추정됐다.
- 통계청은 30일 6월 산업생산 동향을 발표한다.
- 대외적으로는 29일 미국 2분기 GDP(속보치), 30일 미국 6월 개인소득·개인소비, 중국 7월 제조업 PMI 등이 발표된다. 이같은 지표 결과에 따라 글로벌 경기 고점 논란에 대한 시장 평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달러/원은 1150 원 부근에서 위·아래 저항을 거세게 받고 있다. 이번 주 환율은 강 달러 모멘텀 확산 여부를 주목하면서 단기 방향성에 힌트를 얻기 위해 애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환율 변동성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필요해 보인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금리 레인지 저점 인식 속에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와 미국 국채금리 흐름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주중 1.13%까지 급락하면서 마치 '게임 체인저'가 된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잠깐 흔들리는 듯했던 미국 증시는 어느새 재차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연준의 테이퍼링 결정을 늦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최근 장세의 기저에 있다.
- 시장은 27~28일로 예정된 FOMC 회의에서 연준 역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통화정책 정상화에 좀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관련이지만, 결국 경제지표의 문제다. 한국은행의 판단대로 코로나 19 확산에도 물가와 경기 지표가 생각만큼 영향받지 않을 수도 있다.
- 현재의 가격 움직임이 아직 경제지표의 방향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 최근의 미국 국채금리 급락에는 투자자들의 과도한 불안감이 선반영돼 있다는 점, 결국 벌어질 일은 벌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레인지 저점에 선 매도가 정답이다.
- 한국은행은 27일 2분기 GDP(속보치)를 발표했다.
- 통계청은 30일 6월 산업생산 동향을 발표한다. 지표가 잘 나오든 그렇지 않든 채권시장은 일단 "코로나 확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초점)-연준 의장의 말이 중요할까, 분위기가 중요할까..첫 연구 결과 나와

워싱턴, 7월 22일 (로이터) - 지난 2018년 취임 당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솔직하고 쉬운 언어로 통화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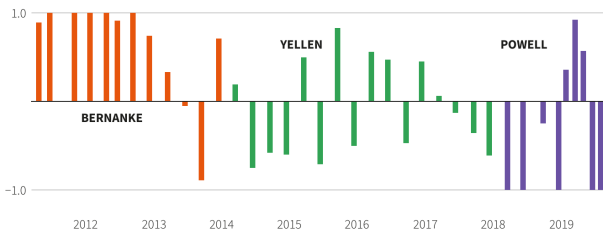
이후 그는 약속을 지켰을까?

최근 인공지능과 음성분석을 이용해 파월 의장과 재닛 옐런, 벤 버냉키 전 의장의 목소리 톤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파월 의장의 목소리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버냉키의 경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이 더 많이 느껴졌으며, 옐런의 목소리에서는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최근 인공지능과 음성분석을 이용해 파월 의장과 재닛 옐런, 벤 버냉키 전 의장의 목소리 톤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파월 의장의 목소리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버냉키의 경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이 더 많이 느껴졌으며, 옐런의 목소리에서는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The Fed's emotional tone

Research using voice analysis rated the emotional "tone" of Fed chairs at their press conferences. The measurement is independent of the words used, with 1 being positive, 0 neutral and -1 negative.



Source: Yuriy Gorodnichenko, Tho Pham, Oleksandr Talavera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이러한 차이를 인지했을 수도 있다.

이번 연구의 저자들은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감정적인 어조로 얘기할 때는 사용된 단어의 의미 보다는 어조 자체가 주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기자회견에서 연준 의장의 목소리가 긍정적인 톤에서 부정적인 톤으로 바뀌는 경우 S&P500 지수에 미

치는 영향은 무려 200bp에 달했는데, 이는 연준 의장이 메시지를 통해 시장의 기대를 형성하고자 할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저자들은 이달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발간한 워킹페이퍼에서 "대중이 정책 메시지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데 일정 수준의 연기력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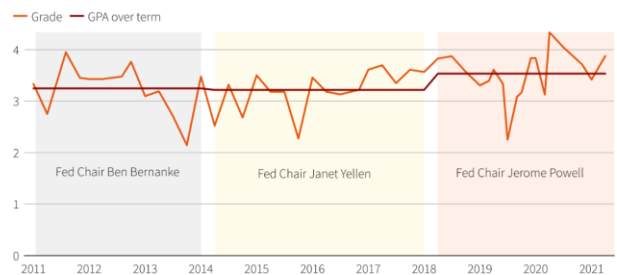
정책의 기술적 분석에 더 초점을 맞추는 듯한 채권 시장은 채권 수익률과 환율에 의해 반영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다소 완만하게 움직이는 등 연준 의장의 목소리 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내년 초 파월 의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뤄졌다.

현재까지 조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19 사태 관리와 관련해 파월 의장의 성과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코노미스트들은 그가 재임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과 음성분석은 파월 의장의 목소리 톤이 부정적 느낌을 준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시장 참가자들은 대체로 그의 의사소통 스타일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 초 발표된 브루킹스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시장은 연준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잘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Wall Street marks up Powell Fed



Note: Respondents grade the Fed's public communications on a scale of 1 (ineffective) to 5 (effective). Source: New York Fed Survey of Primary Dealers, Reuters calculations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중앙은행 고위 관료들의 성명에 자주 반응하기 때문에 언어는 통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중요한 도구다. 언어를 통해 경제 전망 및 중앙은행 움직임에 대한 대중의 시각을 형성함으로써, 관료들은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

지난 2006~2014년 연준 의장을 역임했던 버냉키는 연준의 '비밀주의'를 깨고 2011년부터 정책회의 후 분기별 기자회견을 열기 시작해 의사소통에 더 큰 역할을 부여했다. 파월 의장 취임 이후 연준은 정책회의 후 매번 기자회견을 하며 이러한 의사소통의 시간을 연 8회로 늘렸다.

'연준식 화법(Fedspeak)'에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연준 의장 3명 역시 기자회견, 의회 청문회, 또는 언론 인터뷰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연준의 정책 문서와 연설문에 대한 공식적인 내용 분석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 분석 도구를 이용해 연준 의장의 감정적 목소리 톤이 단어의 의미나 정책 조치와는 별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번 연구 저자들은 밝혔다.

이번 연구는 머신러닝 기술과 음성녹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버냉키, 윌런, 파월 의장이 한 36차례 기자회견에 있었던 질문 692건에 대한 반응을 다섯 가지 감정(행복, 기쁨, 중립, 슬픔, 화남)으로 구분했다. 이 연구는 각 회의와 관련된 시장의 반응에 대해 별도의 분석을 제공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코로나 19 팬데믹 발생 이전으로, 작년 파월 의장은 연준 의장들이 보통 잘 쓰지 않는 "가슴 아픈(heartbroken)"과 같은 단어를 자주 사용한 바 있다.

저자들은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메시지가 가진 내용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며 (연준 의장이 가져야 할 요건에) 또 다른 자격요건(목소리 톤 조절)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초점)-델타 변이에 억눌린 원화..7월 무역 적자 가능성까지 '부담'

서울, 7월 22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4차 대유행이 확산하는 가운데 원화가 약세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800명대로 급증해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그간 모범 방역국으로 차별화 양상을 보였던 원화에 절하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달 들어 원화는 달러 대비 약 2.3%, 위안화 대비 약 1.8% 각각 절하됐다. 달러/원 환율은 작년 10월, 위안/원 환율은 작년 3월 이후 최고치로 올라섰다.

지난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코로나 재확산에도 한국 경제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같은 진단에 따른 시장 효력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 한국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외환 수급 경계감도 형성 중이다.

▲ 다시 찾아온 코로나 불확실성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위주로 확산세가 거세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신흥국을 비롯해 그간 모범 방역국으로 꼽혀온 한국과 호주 등을 향한 시각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호주는 주요 지역에 봉쇄령이 내려지는 등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호주 중앙은행의 매파적 기초가 누그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달 호주달러 가치는 2% 하락 중이다.

한 은행 외환 딜러는 "코로나 확산 추세가 달라져야 원화에 대한 분위기도 달라질 것 같다"면서 1160원대 중반까지 달러/원 상승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도 최근 코로나 확산과 위험회피 여건에 대한 원화의 반응이 과도하다는 해석도 함께 나온다.

다른 은행 외환 딜러는 "집단면역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한국의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미국이나 영국 수준까지 올라오기 전에는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이전처럼 코로나 불안이 시장 전반에 확산하기보다는 국면이 다소 진정된다면 환율이 오히려 빠르게 되돌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 당국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시장 영향을 지켜 보면서도 대외 리스크 영향이 국내에서 증폭되는 데 대해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

▲ 무역적자 가능성..적신호일까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대 급증하며 호조세를 이어갔지만, 무역수지가 40억달러 적자를 기록해 시장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수출 호조에도 수입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해 7월 전체로도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씨티은행은 전날 보고서에서 7월 한국 무역수지가 2억달러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예상대로라면 15개월 만에 적자 전환이다. 6월에는 44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이같은 결과에도 타이트한 외환 수급 상황이 재확인되는 것일 뿐 그 밖의 전반적인 달러 수급에 대한 우려를 크게 자극하지는 않는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수입 규모 증가로 무역수지 흑자를 확신하기 어렵다"면서도 "7월 무역수지가 적자 전환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무역수지에 반영되지 않는 선박 수주에 따른 달러 매출 공급 등도 반영해야 한다.

일부 시장 관계자들은 최근 선박 수주로 인한 달러 공급이 이뤄지면서 현재 역대 수급이 대체로 균형적이며 무역수지 수치를 그대로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한다.

(시장진단)-흐릿해진 인디케이터, 또다시 기로에 선 달러/원

서울, 7월 23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연고점을 갈아치우며 상승 탄성을 높였던 달러/원 환율이 일단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국내외 코로나 변이 확산에 따른 위험회피 모멘텀을 원화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은 확대됐다. 그 결과 원화의 월간 절하율은 2%로, 이대로라면 올해 1월 이후 최대 월간 절하율을 기록하게 된다.

한국은행이 조기 금리 인상을 선언할 만큼 한국 경제는 회복 경로를 밟아가는 중이지만,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은 코로나 대유행 시기마다 모범 방역국 차별성이 흐릿해졌고 원화는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이에 달러/원은 9개월 최고치인 1150원대로 훌쩍 올라섰다.

다만 환율의 후속 행보는 산만한 재료 안에 갇히면서 환율은 어정쩡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 코로나 지속력 가우뚱..강달러는 부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변이 확산세가 거세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과 미국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입원률과 사망률 간의 연결고리가 약화되면서 이전과 같은 경제활동 제약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 뒤따른다.

물론 백신 접종률이 낮은 신흥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이어지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겠지만, 이미 이같은 재료는 충분히 반영됐고,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이후 한국의 코로나 확산세는 둔화되고 백신 접종 가속화로 결국 코로나의 시장 영향력은 제한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A은행 외환 딜러는 "코로나 재료를 반영해왔지만, 국내 신규 확진자가 2천명대로 급하게 늘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을 봐도 그렇고 코로나는 이미 반영된 재료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외환당국이 국내 코로나 상황을 주시하면서도 리스크 요인이 과도하게 증폭되는 데 대한 경계감을 높이고 있고 시장도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달러/원 되돌림 시도는 소극적이다.

경기 고점 논란에도 인플레이션 경계 등에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전망에 달러 강세 모멘텀은 작동 중이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미국의 경우 델

타 변이 확산이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여지는 적어 보이고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테이퍼링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다 보니 달러/원 상승압력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이후 상·하단 공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리스크 오프 모멘텀에 한동안 반응했던 주가, 달러, 채권 금리가 이제는 제각각 움직이면서 원화에 대한 뚜렷한 인디케이터마저 사라졌다.

위의 달러는 "시장 참가자들도 헛갈려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환율이 1150 원 부근에서 정신없이 오르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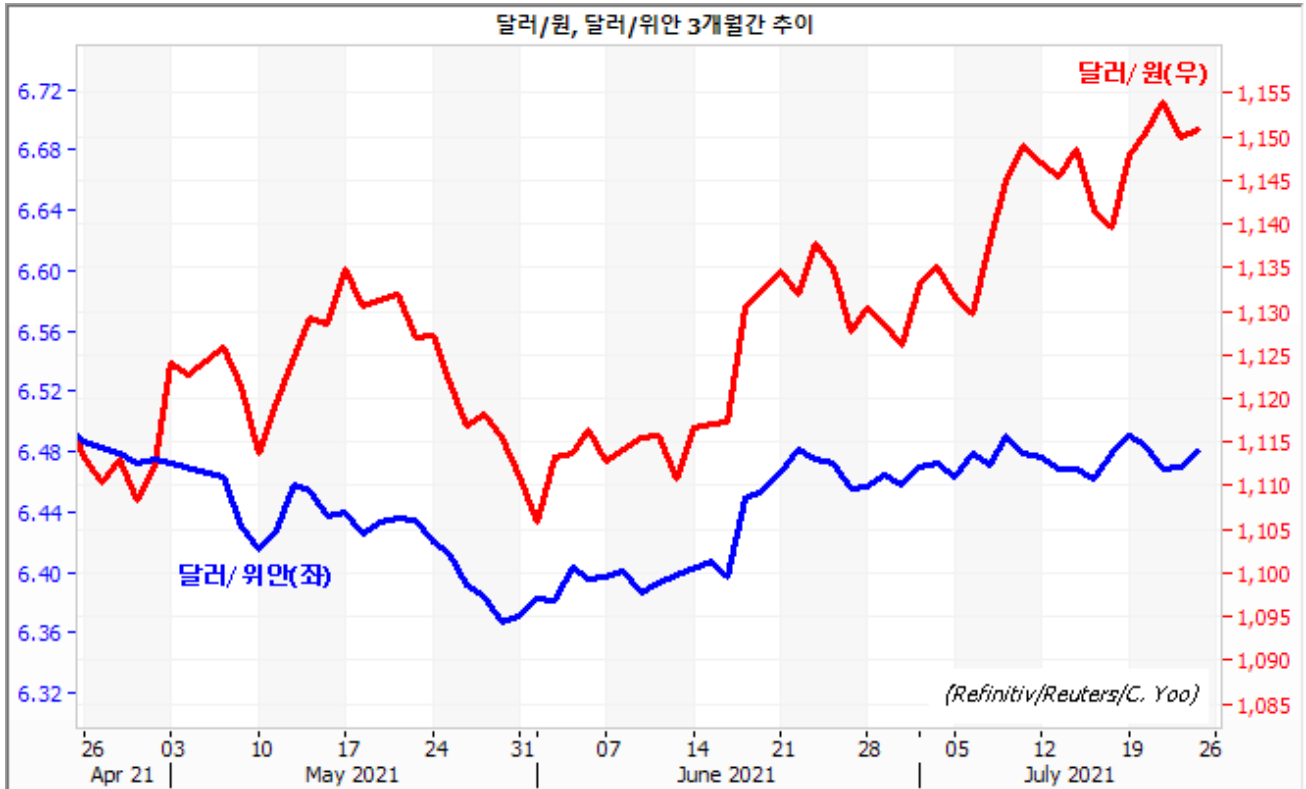
다른 은행 외환 딜러는 "주가는 리스크 온이지만, 달러는 강세다. 환율을 끌어올렸던 역외들은 1150 원대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인디케이터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현 레벨에서 환율이 일방적인 흐름을 타기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달러/원 1150 원대는 위·아래 모두 열려있는 레벨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환율은 당분간 잦은 변동성 국면에서 방향성 탐색기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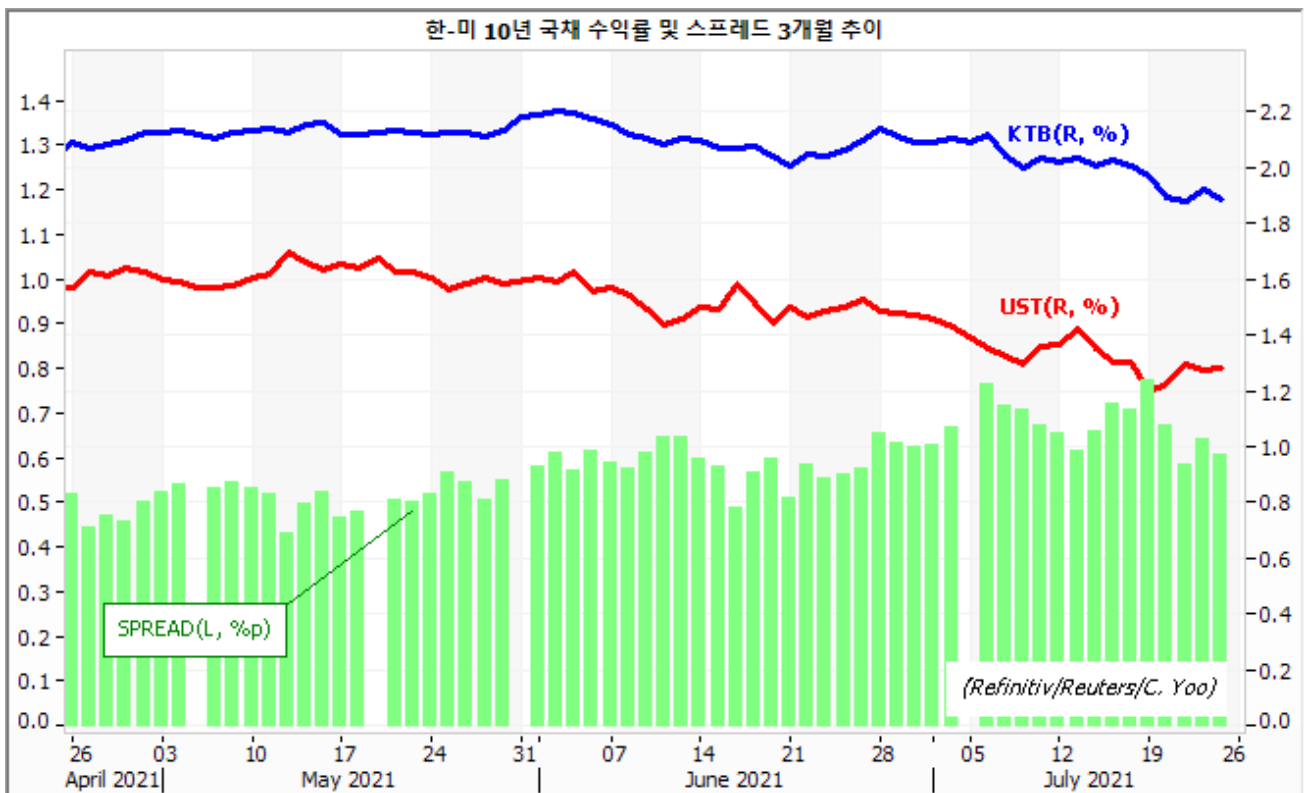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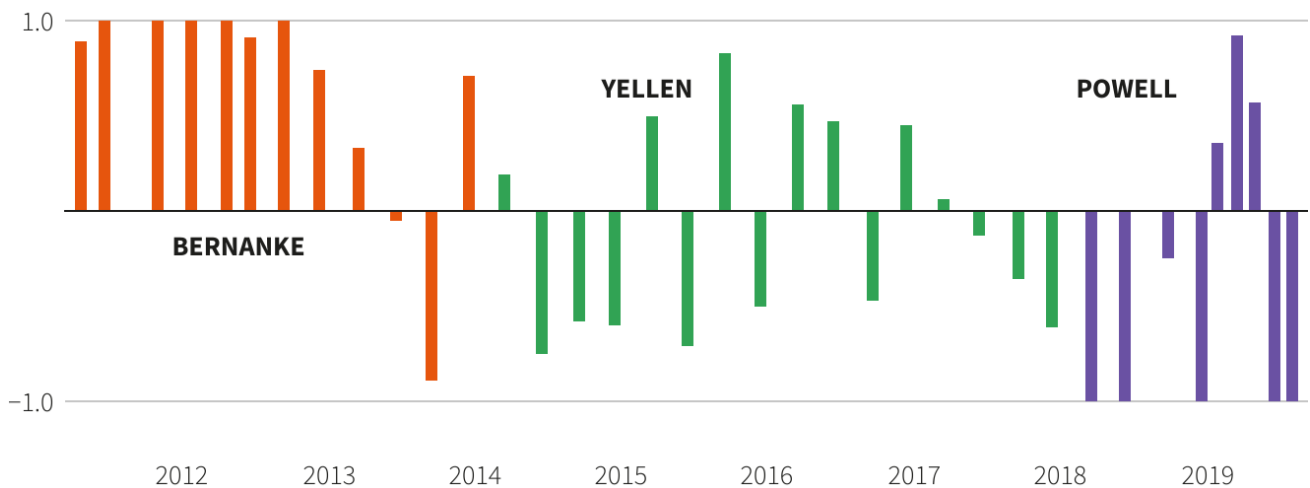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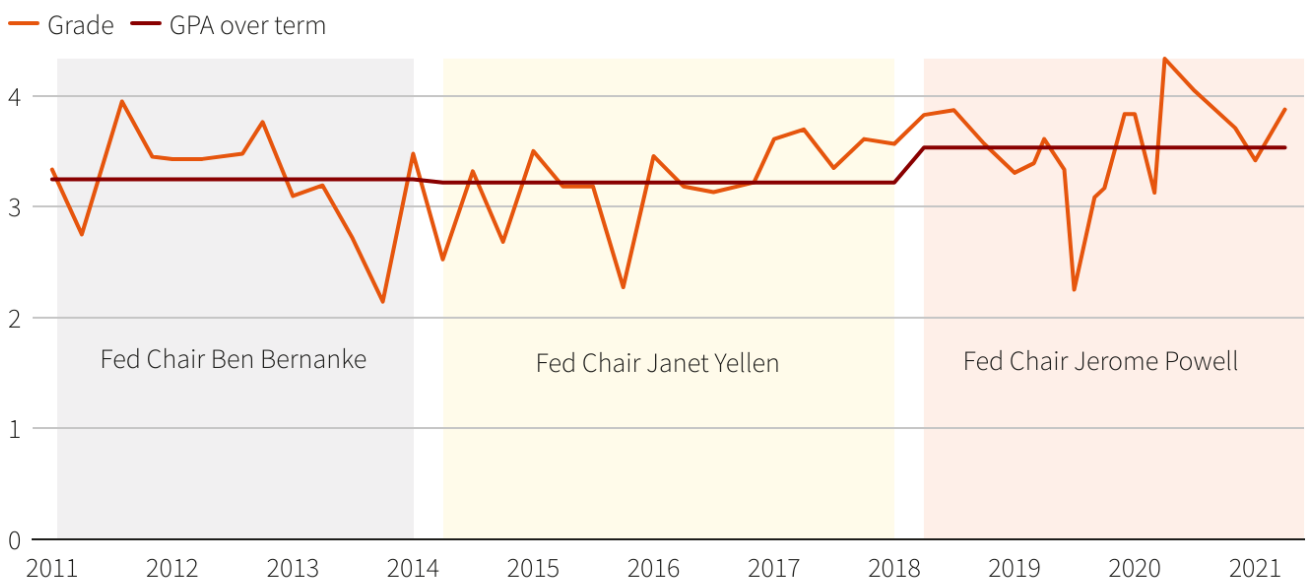
The Fed's emotional tone

Research using voice analysis rated the emotional "tone" of Fed chairs at their press conferences. The measurement is independent of the words used, with 1 being positive, 0 neutral and -1 negative.



Source: Yuriy Gorodnichenko, Tho Pham, Oleksandr Talavera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Wall Street marks up Powell Fed



Note: Respondents grade the Fed's public communications on a scale of 1 (ineffective) to 5 (effective).
 Source: New York Fed Survey of Primary Dealers, Reuters calculation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